

SK에너지, S-Oil과 생산기술 공유

울산서 상생협력 및 교류 확대 ... 기술정보 교환에 상호 벤치마킹

SK에너지와 S-Oil이 울산에서 상생협력을 약속했다.

9월16일 SK에너지 울산컴플렉스와 S-Oil 온산공장 임원들은 “경쟁관계에서 벗어나 협력과 동반자 시대로 나아가자”는 취지로 최근 협력과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.

양사의 만남은 S-Oil 온산공장 임원들의 초청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.

S-Oil 온산공장 하성기 수석부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7월2일 SK에너지 울산컴플렉스의 김영태 부사장을 비롯한 임원 19명을 회사 클럽하우스로 초청해 식사하는 자리에서 동반자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.

SK에너지 울산컴플렉스에서도 8월 말 S-Oil 온산공장 임원 13명을 초청하는 자리를 마련했다.

이에 따라 양사의 생산기술 부문 실무자들도 자연스럽게 협력하고 있으며 기술정보 교류와 상호 벤치마킹 등을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 교류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.

S-Oil 온산공장 신동렬 상무는 “양사의 기술이 대등하면서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대에 협력하는 것이 Win-Win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될 것”이라며 “경쟁보다 생산기술 부문에서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동반자로 나아가겠다”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09/16>